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6호 [주제 제25575호] 주제 106 (2017)년 3월 7일 (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온 나라 천만 군민이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 따라 정의의 핵보  
검, 평승불패의 맥두산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사상최악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협과 핵전쟁 연  
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며  
미쳐 날뛰는 미제와 남조  
선피리호전파들의 도발  
책동을 단호히 쳐막기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  
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격  
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  
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들의 탄도로케트 발사훈  
련이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우리 담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  
인민군 전략군 화성포  
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리병철동지, 김정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군들과 핵무기연  
구부문, 로케트연구부문

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동행하였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새벽  
발사훈련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훈련을 진행

하게 된 화성포병들의 실장마다에는  
우리의 거울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끌끌내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로 선제  
타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  
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과피하  
고 정세를 핵전쟁경계로 몰아가고 있  
는 전쟁미치 괭이들을 탄도로케트집중  
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명석  
의 보복의지가 뿌어번지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  
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인 전략군  
대장 김학경동지, 정치위원 전략군 총장  
박영래동지가 맞이하였다.

훈련에는 유사시 일본주둔 미제침략  
군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위 급진화  
와 신속한 작전수행능력을 관정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략군사령관 김락겸대장을 비롯한  
지휘성원들과 함께 탄도로케트발사장  
들을 돌아보시며 화력타격훈련준비  
정형을 직접 살펴하시고 감시소에  
오르시여 발사계획을 청취하신 다음  
훈련을 시작할때 대한 명령을 내리시  
었다.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대지를 박차고

솟구친 탄도로케트들이 천둥같은 폭음  
을 어뜨리며 날아올라 밟아오는 듯한  
하늘에 원쑤격렬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가득 메운 탄도로  
케트의 비행운을 바라보시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이제는 화력타격조  
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정말 잘 한다  
고, 화력타격의 신속성과 일치성을 철  
저히 보장한다고, 우리의 탄도로케트  
들이 얼마나 고도로 정밀한지 동시발  
사된 4발의 탄도로케트들이 마치 항  
공교에 비행대가 편대비행을 하듯 한모  
양새로 날아간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  
하시였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탄도로케트발사

훈련을 통하여 수중과 지상의 임의의  
공간에서 덤벼드는 원쑤들을 무자비한  
핵강타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  
게, 가장 칠저하게 써도 없이 죽탕쳐버  
릴수 있는 최강의 핵공격무력으로 장  
성강화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의 군사적 위력이 남김없이 파시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번 탄도로케트동시발사훈련을 성과적  
으로 진행한 화성포병들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식의 위력한 탄도  
로케트들과 주체적인 화력타격전법으  
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같은  
최성예의 전략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궁지 높이 말씀하시였다.

본사정지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전략  
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  
의 유일적 령도체계,  
유일적 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  
종자로 한 주체적인 로  
케트 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우리 식의  
초정밀화되고 지능화  
된 로케트들을 헌속개  
발하고 질량적으로 강  
화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언  
제 실전으로 번져질지  
모를 준엄한 정세의 요  
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  
태세를 유지하며 당중앙  
이 명령만 내리면 즉시  
즉각에 화성포병이  
멸렬의 불출기를 뿜을 수  
있게 기동준비, 진지  
준비, 기술준비, 타격준  
비를 빈틈없이 갖출데  
대하여 명령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적들과  
의 관가리결전에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  
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  
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번 탄도로케트동시발사훈련을 성과적  
으로 진행한 화성포병들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식의 위력한 탄도  
로케트들과 주체적인 화력타격전법으  
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같은  
최성예의 전략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궁지 높이 말씀하시였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 하시였다



## 자력자강의 기세드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매진, 총돌격하자!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전민총돌격전을 벌여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며 혁명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이어나갈에 대한 위대한 당의 계속혁명사상이 선단의 실장을 세워세울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총임위원회는 조국성사에 투기할 민족사적인 대경사의 해인 윤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둘마구를 열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분수령을 마련하기 위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소집한것을 선표하였다.

만리마를 한 기세로 질풍노도에 내달리고있는 주체조선의 영웅적진군을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세상에 표시한 만리마선구자대회소집과 관련한 소식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나래를 달아주고 적대세력의 이성을 불우시는 장애를 수소한되성처럼 모두의 가슴을 후련하게 주고있다.

지금 강원도인민들의 기세는 동해의 격랑처럼 세차고 마식령의 산악처럼 드높다.

선군시대의 혁명적군정신이 판생한 력사의 맨에서 만리마시대의 본보기정신인 강원도정신이 또다시 창조되고 우리들은 그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었다.

감격의 그날을 정녕 잊을수 없다.

지난해 12월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시어 강원도 사람들을 자랑며 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두사람, 시대의 전령으로 값높이 불과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풀없는 걱정속에 받아안은 우리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원도인민들에게서 큰 힘을 얻었고, 강원도인민들이 사회주의의 강국의 대문을 남문에서 열어제끼려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드넓게 말씀하시였다.

사실 군대의 정신력의 창조자, 자력강생의 선구자로 내세워 주신 위대한 강군님의 파분한 청가를 심장속에 소중히 새겨안고 자제로 일어서려고 힘과 용기를 꾹꾹주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침길에 헌신을 풀어준데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영광의 절정에 올라설줄을 우리모두는 끔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우리들은 강원도를 전당적인 기준도, 전국의 본기준도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에 결사의 실천으로 보답할 불리는 걸의를 굳게 다지면서 율에 맞게 힘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매진, 총돌격할것을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는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펼치는것은 위대한 당의 요구이고 시대의 절박한 부름이다.

오늘의 하루하루는 당 제7차대회를 빛내인 70돐전후, 200일전후의 현속이다.

기적의 2016년에 만리마를 타고 대비암을 이룩한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승리의 위황한 미래를 내다보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만리마선구자단위, 만리마기수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우리 혁명의 전군속도가 빨라질수록 사회주의 강국의 폐일이 일방겨지며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현실로 끊어나게 된다.

모두가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불음에 흥을 더해 대답하며 순간순간을 새 기록, 새 기준창조의 값높은 위훈으로 빛내이자!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초보행인 생존공간, 마지막숨까지 끌어버리며는 미세와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야만적인 『초강경제』는 오히려 자력자강이 삶길이고 승리이며 선봉투사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 당정책을 생생선으로 물어놓고 나갈 때 승리의 깃이 일리고 행복한 때일이 앞당겨진다는 철리를 우리 강원도사람들은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의 적전장에서 실감깊이 짚갈았다.

대규모발전소를 건설해온 경험도 없고 경제도태도 빙약하였지만 우리 강원도인민들은 그처럼 불편하게 살면서도 일상생활에서 거듭 찾았으었던 남을 쳐다보며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 생활에 불가능이란 말은 사라졌다.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은 글함없는 공적정신으로 새 기록, 새 기준을 들파하며 끝없이 비약하는 거창한 봄생이다.

시련과 난관앞에 순간의 두려움도 멈출도 모르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일주하는 강용한 기상, 성파에 차단을 도르는 강한 일우심, 사회주의승리를 확신하는 혁명적학판, 이것이 만리마선구자들의 사상정신적특징이고 두정방식이다.

어제와 오늘을 다르고 차이와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격동의 시대에 침체와 답보는 허용될수 없다.

우리 강원도에서 인연청년2호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건설에 이어炳대한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완공하고 또다시 여러 발전소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고 있는 대량한 작전의 근처에는 바로 백두의 굽힘없는 공적정신이 박차고 있다.

우리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맞으며 뜨뜻술은 6월 19일까지 도직으로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을, 10월 8일까지는 원산구두공장과 충도원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주요공장, 기업소들에서 네 간간 행렬의 열매로 전기터, 소음, 생물력을 보는 오늘을 안아온 전변의 원천이다.

만리마대전 군의 영예로운 활전자들이여!

자력자강의 긍지급진한 창조물들로 천추들의 정수리에 철주를 내리며 조선의 본래를 만땅에 펼치자!

모든 도, 시, 군들을 자기 땅에 있는 자기것을 가지고 자력강생이며 흥하고 만성하는 자급자족지역으로 전변시키자!

수령이라는 말자자에 종지부를 짹고 우리의 것으로 세계적인것을 더 많이 창조하자!

우리 상표를 단 명체들, 명상품들을 팽팽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이 가떻게 하자!

자강액은 곧 파학기술이며 파학기술은 무장조국건설의 위력한 보검이다.

자강액제일주의 자랑높은 우리 강원도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신심에 넘쳐있는것은 파학기술을 자기 손에 확고히 틀어쥐고있기때문이다.

당의 높은 평가는 강원도 7월8일소년단이 영소와 거기에 갖추어놓은 인공잔디와 고무장판, 수지의자를 비롯한 자력강생의 산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도자기와 파학기술력량에 의거하여 마련한 소중한 재부들이다.

우리 혁명의 강력한 핵심부대, 핵심력량인 파학자, 기술자들이여!

『북극성』안도단과 같은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무기들을 뛰어이 만들어내는 국방과학원사단처럼 원수들의 최신기술복잡이망을 첨단불파전의 불길로 젓부서버리자!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시수원, 사회주의수호전의 천초명이라는 전사의 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세계를 앞두는 철권수준의 파학기술을 끝임없이 창조하자!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국산화실험에서 나서는 파학기술적문제를 스스로 찾아안고 자체화 및정을 꽂고자 마치 알찬 팔구의 열매를 주렁주렁우자!

누구나 파학기술증시를 자기 가사처럼 여기고 배우고 또 배워 파학기술인재가 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여 사회주의증진경쟁평도표들에 기적의 만리마들이 다투어 날아오르게 하자!

누구나 만리마의 주인, 만리마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고귀한 피와 땀을 바친 혁명의 전세대 앞에 한정 부끄럼없이, 후대들의 맑은 눈동자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강성번영기를 염려해온 만리마시대의 영예로운 참전자로 몇몇이, 자랑스럽게 비낄수 있게 오늘의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이자!

오늘의 만리마시대는 청년들의 활투데이다.

태우는 만리마청년대 강국의 주인공들이 청년들이여!

천군만마와도 같은 족룡기상으로 대고조적전장들을 청년만으로 둘씩하게 만들며 당시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친구마다에서 전격의 둘파구를 열어제끼자!

면 후날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의 노래를 궁지 높이 부를수 있도록 청춘의 자시전에 영웅적휘운을 세기자!

전국의 근로자들이여!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강국건설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우리모두를 부르고있다.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힘차게 울리며 전선속의 천리마가 새기를 주며 잠던 그때처럼 『우리는 만리마기수』의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며 기적의 만리마가 세계를 디디고 날아오르게 하자!

미제와 그 주종세력들이 우리의 만리마대전군을 가로막으려고 제아무리 피를 흘고 냉비어도 세계의 유일무이 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고 동방의 해강국, 군사강국의 성세가 있으며 주체파학의 투구투련한 절제력이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는 파학이다.

평명한 미대를 향해 돌진하는 흥진군데오의 전두에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꽂피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만리마시대의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창조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향해 우리

국민에게 헌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다발적으로 펼쳐나가자!

우리 모두 승리의 험계를 헤쳐나가고 만리마선구자 대회장에서 몇몇이 만나자!

자력자강의 기세드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축기한 공격전으로 나라의 방탕곡곡, 동서해전

주제106(2017)년 3월 6일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강원도군중대회 참가자일동







